

『만복이네 떡집』 한 학기 한 권 읽기



만들어 보고 싶은 떡이 생기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말을 하면서 혹은 행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머리 속에서 작동하는 걸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 멈춰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한 번 터져버린 감정의 폭 발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기 일쑤입니다. 속마음과 달리 말은 내뱉어지고, 행동은 내동댕이쳐지고 맙니다. 바로 후회가 밀려들지만 상대방은 내 머리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관계는 계속 꼬이고 틀어지기만 합니다.

『만복이네 떡집』은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우고, 욕하고, 심술부리는 ‘만복이만을 위한 맞춤 떡집’이라는 판타지를 통해 변해가는 모습을 담은 유쾌한 성장기입니다. 작가는 선불리 가르치려 하지 않고 떡의 마법에 빠져 이야기를 따라 가다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또한 만복이 뿐만 아니라 장군이처럼, 은지처럼 크고 작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의 열린 결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 차례야. 어떤 떡을 만들어 보고 싶니?”

▶ 책 읽기 전에 알아두기

김리리 작가는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월간 『어린이와 문학』(1999년)을 통해 등단했습니다. 글을 쓰고 등단을 하기 전까지 다채로웠던 삶의 이력만큼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책을 쓸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작가입니다.

만복이의 속마음을 읽는 동안 어른들은 미운 행동을 하는 아이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만복이 같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칩니다. 늘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키던 수많은 만복이들도 어쩌면 자기의 속마음을 동화에서 만날지도 모릅니다. 작품을 읽으면 아이들에 대한 세심하고 따뜻한 관찰, 가르치려 하지 않고 아이의 편에서 응원하고 응시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건네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나는 타고난 이야기꾼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복이네 떡집』의 판타지 성을 살리는데는 이승현 그림 작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 굵은 그림체와 역동적인 배치, 그리고 익살과 해학이 넘치는 등장인물들의 표정이 일품인 그 답게 이야기의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장면을 책 한 쪽 면 가득, 혹은 펼친 화면 가득 그림으로 채워 놓았습니다. 만복이의 실감나는 표정 변화와 함께 떡의 특징을 잘 살린 그림은 삽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만복이네 떡집과 남자 아이

- 표지 보며 그럴듯한 상상하기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주기 전에 책표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목과 그림을 견주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럴듯한 상상해 보기는 그럴 듯하기만 하다면 어떤 연결이나 상상도 좋습니다. 그 자체로 서사를 만들어 보는 경험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덕목은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상승시켜 놓는데 있습니다. 내가 혹은 친구들이 펼쳐놓은 이야기 구슬 가운데 어떤 구슬이 이야기에 꿰어지게 될지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표지에는 책의 제목이자 떡집의 간판인 ‘만복이네 떡집’과 떡집 창문 너머로 따끈 따끈한 김이 올라오는 먹음직스런 떡, 그리고 남자 아이 한 명이 익살맞은 표정의 남자 아이가 보입니다. 떡집 안을 들여다보는 것인지, 두 손을 모으고 떡집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 남자 아이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인공인 만복이다.’, ‘저 남자아이네 집에서 운영하는 떡집이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면 한 쪽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아니다. 이름이 촌스러운 것이 저 남자아이의 아빠이거나 할아버지가 만복이고 재는 아들이거나 손자다.’, ‘ 무슨 소리냐? 자기네 집에서 하는 떡집인데 왜 밖에서 몰래 보고 있는 거 같냐?’는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이 때쯤 되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저 남자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창작을 시작합니다. “자기네 떡집 앞에서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있다. 만복이 할아버지가 구두쇠라 알바를 하는 것 같다.”, “만복이네 떡집 앞을 지나가던 아이가 배가 고파서 떡집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훔쳐서 벌을 받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 한 아이가 일단 말을 던지면 또 다른 아이가 그 말을 이어 받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의 실타래를 던져놓는다. 누구의 짐작이 맞을까? 아이들의 기대는, 당연히 커집니다.

▶ 책을 읽으면서

욕쟁이 만복이,깡패 만복이,심술쟁이 만복이도 사실은

- 만복이의 속마음 들여다보기

첫 장을 펼쳐 첫 문단을 읽으면 드디어 만복이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만복이는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워서, 욕쟁이 만복이, 깡패 만복이, 심술쟁이 만복이라 불렸어. 그래서 늘 뒷자리에 혼자 앉아야 했지. (『만복이네 떡집』, 5쪽)

표지에 있던 아이가 만복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주인공이 표지에 나오는 것을 대부분 당연한 노릇이니깐요. 이제 아이들은 만복이에게 벌어질 일을 흥미진진하게 기다립니다. 더구나 착한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반에 한 명 혹은 몇 명쯤은 있을 법한 그런 골칫거리 친구가 떠오른다면 더 하겠지요. 하지만 그래서 교사의 세심한 마음 씀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반 아이 이름이 언급되면 아무리 심술쟁이 아이더라도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 시간이 되면 안 되니까요.

‘선생님,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만복이는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입을 열었지.

하지만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어. (『만복이네 떡집』, 10쪽)

은지를 놀리는 말을 해 버리고 스스로 ‘깜짝 놀라서 입을 꼭 다물었’다는 만복이는 사실은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속상한 마음을 지닌 아이였다는 것을 알면 만복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선생님들께 책을 읽어주면 하나 같이 우리 반에도 만복이가 있다고, 우리는 한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나 된다고 하며 웃음이 터집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마음에 남는 부분을 고르라고 해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어쩌면 우리 반 만복이도’라는 생각에 좀 더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미안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의외란 듯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바라보기도 하고, 자기도 그런 적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만복이 속마음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런 공감의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려 주기도 합니다. ‘센 척 하지만 사실은 재도 약하구나’를 느끼는 순간 속상한 마음도 덜 해집니다. 더구나 정말 ‘우리 반 만복이’가 동화 속 만복이 같은 아이였다면 ‘그 아이’는 어떤 심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될까요! 책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간에 기분 좋은 흔들림이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복이가 달라지니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네

- 관계의 변화 느껴보기

만복이도 처음 본 낯선 가게의 이름은 ‘만복이네 떡집’이었습니다. 표지에 있던 만복이네는 떡을 파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만복이도 처음 본 가게였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옥쟁이, 깡패, 심술쟁이 만복이 앞에 나타난 ‘만복이네 떡집’에서는 이 후 어떤 일이 펼쳐질 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떡 가격 ‘아이들 웃음 만 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도 함께 말입니다.

만복이는 바구니에 붙은 쪽지를 읽어 보고 입이 짹 벌어졌어. 쪽지에 적힌 대로만 된다면야,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떡집에 있는 떡을 몽땅 사갈 생각이었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 쪽지 아래 이상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거든. (『만복이네 떡집』, 21쪽)

만복이가 산 ‘떡’들은 특별한 효과가 제 각각 있습니다. 찹쌀떡을 먹고 입이 척 달라붙어 버린 만복이는 한 번도 안 싸운 첫 날!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저 입만 다물었을 뿐인데 아이들과 눈을 마주하며 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웃음’이라는 가격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잘 웃어주고, 예쁘게 말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는데 자신의 속마음까지 잘 알아주는 친구를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슬금슬금 피하는 친구들을 느끼면서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던 ‘옥쟁이 만복이(29쪽)’, ‘깡패 만복이(35쪽)’, ‘심술쟁이 만복이(40쪽)’는 마침내 ‘만복이’가 됩니다.

결국 만복이는 다가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 맺기에 실패했던 만복이의 변화를 통해 수많은 만복이도 어찌면 변하고 싶은 자신을 발견할 지도 모릅니다.

이제 ‘만복이네 떡집’은 ‘장군이네 떡집’(52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실은 정말 잘 지내고 싶었구나. 기운내. 너도 만복이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작가의 유쾌한 시도가 더욱 고맙게 느껴집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장군이에게 필요한 떡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외치고, 나에게도 필요한 떡을 파는 떡집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 책을 읽고 난 뒤

삽화가 집게 자석을 만나다

- 삽화 이용해서 일이 일어난 순서, 원인과 결과 정리하기

3-4학년 아이들은 문학 작품을 읽고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여 줄거리를 쓸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40분가량 읽어야 하는 책의 순서를 어떻게 정리해볼까? 여기에 적합한 것이 바로 삽화입니다. 이야기의 맥락을 잘 잡아 그린 삽화를 보면 그림만 봐도 이야기의 흐름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승현 작가의 그림은 이 활동에 아주 적합합니다.

책 읽기가 끝나면 한 면 가득 큼직하게 그려진 삽화를 칼라 프린터기로 확대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집게 자석으로 집어 칠판에 순서 없이 붙여놓습니다. 아이들에게 순서대로 같이 정리해보자고 하면 ‘저 그림을 맨 앞으로 보내라.’, ‘아니다, 그 그림은 저 그림 다음에 와야 한다.’며 들어서 이해한 내용들을 서로 정리하며 그림의 순서를 잡아갑니다. 특히 떡을 먹었을 때 만복이의 모습을 그린 장면들은 그림만으로도 어떤 떡인지 짐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작가의 감각이 돋보여 순서를 정리하는 순간도 즐거움 놀이가 됩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읽은 후 활동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줄거리를 정리하기에 좋은 삽화가 있는 작품들은 책을 읽어주는 동안 삽화는 최소한으로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책이 있다하더라도 말입니다. 삽화를 정리하고 삽화 설명을 간단히 적어 전체적인 줄거리로 연결해서 쓰도록 하면 어려운 줄거리 간추리기도 조금 덜 어렵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장군아, 너도 만복이처럼 변할 수 있을 거 같니?

- 등장인물이 된 친구, 인터뷰하기

문학 작품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등장인물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마치 시나리오나 희곡에 드러나지 않은 등장인물의 배경이나 심리상태를 생각하고 감독과 협의하며 입체적인 주인공을 창조해 가는 것처럼 인물에 대한 탐구과정이 작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

“선생님, 우리도 우리 떡집 만들고 싶어요.”

“선생님, 나는 떡 싫어하는데 아이스크림 가게로 만들면 안되요?”

아이들은 클레이로 떡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정성스레 담아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네 떡집’, ‘○○네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좀 더 멋진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떡이 만들어 지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 함께 읽어 봐요

김리리 작가의 다른 책을 더 읽고 싶다면 어렵지 않게 학년에 따라 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에겐 이슬비 시리즈와 『뽕이요, 뽕!』, 이승현 그림작가와 김리리 작가의 만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놀고 먹는 군과 공부 도깨비』도 그림책에서 동화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친구관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중학년 아이들을 위한 『쥐똥 선물』도 좋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문제의식을 놓지 않으면서 섬세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 『나의 달타냥』이나 다양한 주제를 결코 가볍지 않은 단편으로 담아낸 동화집 『감정종합선물세트』, 『내 이름은 개』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